

전통적 이야기 서술방식의 현대적 변용 양상 연구

- 『혼불』을 중심으로 -

김용재(전주교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전통적 이야기 서술방식의 변용과 효과 |
| 2. 전통적 서술방식의 소설적 형상화 | 4. 결론 |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전통적 이야기 서술방식이 현대소설에서 어떻게 변용 창조되어 재현되고 있는지 장편소설 『혼불』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전통적 이야기 서술방식의 구체적 양상은 작가 서술의 과도한 힘 또는 부감적 서술자의 등장, 구술성이 강조된 ‘읽음’의 문장 전개 방식, 굿이나 판소리 마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자를 서술세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묘사나 설명으로 요약된다¹⁾.

총 5부, 10권의 연작으로 구성된 『혼불』은 “각양의 삶에서 취하여 각색한

* 이 논문은 2012년 전주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김용재, 『한국소설의 서사론적 탐구』, 평민사, 195~207면 논 의 참 고.

이야기와 전승을 통해서 익숙해진 문화에서 취하여 변주한 이야기를 제재 삼아 장대한 서사²⁾를 이룬 작품이면서, “한국적인 창작방법을 이상적으로 실현해 보인 민족문학의 전범³⁾”으로 예찬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 이면에는 역사-민족지적 성격의 텍스트가 산재해 있으면서도 감각적이고 서정적인 언어로 한국적인 소설 창작방법을 보였다는 연구자들의 동의가 있다⁴⁾. 『혼불』의 서술 방식이나 담론 구성 방식을 살필 때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이야기 방식, 즉 가장 한국적인 전통 소재에 구술 서사의 특성을 살려 한국적인 창작법이 개입되어 있는 점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혼불』은 중심 서사에 수많은 기생 텍스트를 삽입하면서 시간의 단절과 지연 형식으로 인물의 운명적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작품의 서사 진행은 전통적 삶의 양식 속에 운명적으로 살아가는 종가 집 여성의 삶의 모습, 강모-강실-효원-오유기-춘복 등의 애정 서사, 거명굴 사람들의 생활상과 일제하의 현실에 부유하는 매안 종가의 모습이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⁶⁾. 이러한 서사의 축은 인물의 운명에 초점을 맞

-
- 2) 장일구, <혼불>의 문화 담론적 자질과 저자성 역할, 혼불기념사업회 편, 『혼불, 그 천의 얼굴 1』, 대학사, 2011, 14면.
- 3) 이명재, <혼불>의 소설미학적 특질, 『현대문학이론연구』 1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1999, 94면.
- 4) 이와 같은 시각을 대표하는 연구로 다음과 같은 논문이 주목된다.
 김열규, <혼불>의 생태비평, 『현대문학이론연구』 12집, 1999.
 장일구, 『혼불읽기 문화읽기』, 한길사, 1999.
 황국명, <혼불>의 서술방식, 전라문화연구소 편, 『혼불의 문학세계』, 소명출판, 2001.
 임환모, <혼불>의 텍스트성과 서사 전략, 『현대문학이론연구』 20집, 2003.
- 5) 김용재, <혼불>의 이야기 구조와 담론 특성, 『초등교육연구』 20집 1호, 전주교대 초등교육연구원, 2009.
- 6) 이 작품의 이야기를 진행하는 세 요소는 종가 여성의 삶, 애정의 서사, 현실반영의 축으로 요약된다. 황국명은 이를 종부 3대의 축, 애정의 축, 정치의 축으로 나누고 이들 모두 서사의 추동력을 잃어 “서사가능성이 희석화”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황국명, 『혼불』의 서술방식 시론, 『현대문학이론연구』 1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1999.) 필자는 ‘정치의 축’이 함축하는 의미가 역사, 이념을 포함하는 의도가 바탕에 있어서 소설미학을 밝히는 작업에서는 부적절한 용어여서 ‘현실반영의 축’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용재의 황국명 논문에 대한 토론문 참고(현대문학이론학회 『학술자료집』(1999))
 이 중에서 중심 서사에 놓인 것은 남원 매안 종가 여성의 삶이다. 청암부인과 윤춘매, 효원으로 이어지는 종부의 삶은 전통 의식 속에 가계를 꾸려가는 여성들의 운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운명의 서사’라고 할 수 있는 종부의 삶은 서사성이 약화된 정적 플롯이라면, 동적 플롯으로 서사를 진행하는 힘은 강모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애정의 관계 축과 거명굴 사람들의 대화나 작가 서술로 설명되는 현실반영의 축이다. 이처럼, 『혼불』은 일제하 현실이라는 외부적 변화상과 애정의 구도라는 개인의 욕망 두 축을 연계시키면서 종부로서의 삶의 모습을 ‘운명의 서사’ 형식으로 그려나가고 있다. (이야기 구조의 전반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용재, 앞의 논문, 2~6면 논의를 참고.)

추고 있으며 동적 플롯을 제공할 때에는 전통적 서술방식으로 서사를 이끌면서 독자를 이야기관에 참여하게 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 서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술세계와 구연(口演)방식, 엮음의 문장, 사실의 직접 보고(報告), 직관과 감성의 언어 활용 등으로 『혼불』의 서사는 서술자와 독자가 한 무대에 있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혼불』에서 보이는 다양한 서술 방식 중에서 전통적 서술방식을 채용한 부분을 찾고, 이들이 갖는 서술 의미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혼불』1부를 중심 텍스트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장편 서사물인 이 작품의 서사 진행의 핵심이나 서술 특성이 1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⁷⁾.

2. 전통적 서술방식의 소설적 형상화

우리 고유의 이야기 전달 방식은 기본적으로 작가적 개입이나 작가의 목소리가 서술 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 내용을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구조를 지닌다. 근대 소설론에서는 작가의 개입이나 설명적 권위를 지니는 서술자의 서술은 문학적 리얼리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취급받아 왔다. 즉, 소설의 사실성 획득을 위해서는 이야기하기 (telling)의식보다는 보여주기

7) 김병용은 『혼불』을 해석학적 시각으로 분석하면서 결론적으로 “『혼불』 1부는 완결된 텍스트로 작품 전체의 코어(core)에 해당하”며, “2-5부는 1부에 대한 메타 서사(meta-narrative)이고, 서사 핵인 1부에 대한 재창조와 재해석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김병용, 『최명희 소설 연구』, 전북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4.) 이러한 지적은 1부의 서사 진행이 강모와 효원의 혼례에서 시작하여 청암부인의 죽음으로 끝나며 2부 처음 부분의 4장 ‘돌아오라 혼백이여’는 다시 청암부인의 혼백이 효원에게 전이되어 서사가 확산, 재생산되고 있고, 춘복과 강실의 결합, 강태와 강모의 만주행도 1부의 확산 이야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매우 타당하다. 또한 이 1부는 한길사 발행 『혼불』(1996년판, 전10권)의 저본(底本)이라고 볼 수 있는 『魂불』(1983년 동아일보사 간행본)의 서사 진행과 같아서 하나의 완결된 텍스트로도 볼 수 있다. 서술 방식이나 형식, 문체적 특징도 이 1부에 보이는 특성이 2-5부 진행에서도 반복되고 있어 1부의 상세한 분석이 이 작품의 서술방식을 규정짓는 가능자가 된다.

이 논문은 필자의 앞의 논문(2009)의 후속작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김용재(2009)에서는 『혼불』의 이야기 구조를 정리한 후, 한국적 이야기 서술의 재현방식을 첫째, 사실의 전사(轉寫)는 구술을 통한 이야기 전개의 변용형태이면서 인물이나 플롯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점, 둘째, 문장의 ‘엮음’ 형식을 차용하여 현장성이나 직접 소통을 강조하는 구연(口演)형식을 변용하고 있다는 점, 셋째, 작가적 설명이나 서술이 독자 유인효과를 발휘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showing) 방식이 인과적 사건 전개에 타당한 진술방식이라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연쇄, 인물성격의 변화, 현실 인식과 소설적 기법 사이의 관계에서 오히려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새로운 효과를 창출하는 창작방법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식의 대표적인 작가가 채만식의 소설에서 확인된 바 있다.

채만식의 ‘소설 쓰기’의 기본 시학은 서술자의 ‘이야기하기’정신에 있다. 이 ‘이야기하기’창작 정신이 설명적 진술을 바탕으로 구어의 세계로 환치하면서 구체화하는 특성을 보였다. 일찍이 채만식은 ‘조선 문학적인 것’과 ‘중기교론(重技巧論)’을 강조한 바 있었다⁸⁾. 그는 여러 형식의 소설이 외국문학 이론을 바탕으로 소개되고 그에 따라 평가하는 당시의 문학풍토에 불만을 표하면서 ‘조선적인 것’을 늘 강조해 왔다. 여기에서 조선적인 것은 전통적인 정서나 전통 소재가 아니라, 조선의 현실을 소재로 취해서 적절히 우리식으로 승화시킨 문학적 개성을 뜻한다.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은 그가 강조했던 ‘조선 문학’의 개성과 색채, 예술적 기교를 뜻한다. 결국 그의 창작방법은 우리의 의식에 맞는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이야기 방식’을 찾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정신의 결과가 “설명적 권위를 지닌 서술자를 전면에 내세워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방식”을 소설 창작의 기본 시학으로 정립되었다. 이의 구체적 발현 양상은 구술 방식을 택하면서, ‘구연(口演)’의 방식과 ‘읽음’ 문장으로 판을 형성하여 독자를 소설세계에 유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산문적 리듬감을 획득하는 ‘이야기꾼’의식이었다⁹⁾.

전통적인 이야기꾼인 강담사(講談士)나 전기수(傳奇叟) 같이 현장감과 사실감을 살려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은 부감적이고 설명적 권위(diegetic authority)를 지닌 서술자의 강력한 이야기 통제가 기본 틀을 이룬다. 또한 서

8) 채만식은 그의 평론 ‘모방에서 창조로’(『채만식 문학전집』10권, 163면)에서 “조선의 문학도 참으로 ‘조선문학’이라면 조선적인 독자 독특한 성격과 색채를 가진 문학적 개성을 체득하여 야만 하고 그리함으로써 비로소 세계문학과 오(伍)하여 자기를 내세우되 곱힘이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설을 잘 씹시다-創作界에의 提唱’에서는 “예술적으로 형상화시키는 소임은 그의 예술가적인 솜씨, 기교에 달”려 있다고 하여 ‘중기교론’을 내세우고 있다.

9) 채만식의 서술시학이 전통적인 이야기방식을 변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용재, 채만식 소설의 서술시학—‘이야기하기’의 힘, 『한국소설의 서사론적 탐구』, 평민사, 1993, 187~207면 논의를 참고할 것.

술자는 독자의 상상력을 하나의 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스토리 전개보다 시간의 정지나 지연, 삽화를 통해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구어의 리듬을 살리면서 사건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특징을 보인다. 구어의 세계에서는 현장성과 직접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야기의 어느 한 부분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 구체적 방법은 산문이라 할지라도 리듬을 중시하면서 감성에 호소하는 구연(口演)방식이 기초가 된다. 이러한 리듬감은 언술층위의 반복, 끝소리 말 이어가기, 같은 어휘의 반복과 변이, 비유의 층위 변화, 의성어나 의태어를 통한 리듬감 획득, 속담이나 격언의 삽입으로 문장을 ‘엮어가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전통적인 서술방식이 현대소설에서 변용을 이룰 때 문장 수준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엮음’ 문장을 통한 산문 리듬의 획득이나 직관이나 감성에 의존하는 묘사이다. 최명희의 경우에서도 채만식에서 보인 우리 식의 문장 구성방식에 고민했던 흔적이 많이 발견된다. 『혼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간의 지연이나 정지, 장면의 확산과 상세한 묘사, 이야기 전개와 관계없이 보이는 이야기의 삽입이 인물의 형상화나 플롯에 색다른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예사롭게 보아서는 안 된다.

가장 한국적인 말의 씨앗으로 춘향전이나 심청전 같은 우리식 고유의 이야기 형태를 살리면서 서구 전래품이 아닌 이 땅의 서술방식을 소설로 형상화하여, 기승전결의 줄거리 위주가 아니라, 날날이 단위 자체로서도 충분히 독립된 작품을 이룰 수 있는 각 장, 각 문장, 각 낱말을 나는 쓰고 싶었다.¹⁰⁾ (밑줄-필자)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작가가 “우리식 고유의 이야기 형태”와 “이 땅의 서술방식을 소설로 형상화”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전통적 서술 방식을 변용하여 예술적으로 승화된 소설세계를 구축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따라서 『혼불』의 서술 특징을 정리하고자 할 때 전통적 서술방식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구술세계를 근간으로 하는 창작방법의 시도와 연계된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지역 문화적 특성과 궤를 같이 한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지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 최명희, <혼불>은 나의 온 존재를 요구했습니다, 『리브로』 제27호, 한길사, 1996. 12. 18면.

이러한 성향은 논리나 이성 중심의 학문보다는, 감성이나 직관 중심의 예술창조에 적합한 글쓰기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

이야기의 흐름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된 점, 같은 의미를 지닌 낱말의 다양한 쓰임새, 뚜렷한 구성의 줄기가 없고 실가지로 흩어진 점, (...중략...)서정적이고 감각적인 언어의 빈번한 출현,...중략...)과거와 현재 사이에서의 서성거림, 삽화/설화의 도입, 지연과 정체를 거듭하는 서사 진행, 민속지적 사실기술과 자기애적인 연민 등이 『혼불』의 특징을 이룬다. 산문장르의 경계 지우기, 서사 문법의 체제에 대한 저항의 흔적을 드러낸 이 소설은 (...중략...)산문예술-서사양식으로 풀어낸다. 서사규범의 원칙과 권위에 반발함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논리와 이성을 초월한 직관과 감성, 암시와 함축, 그리고 시성(詩性)을 지향하는 글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¹¹⁾

『혼불』에서 볼 수 있는 장황한 묘사나 서사 진행을 지체시키는 “변칙적인 문체”는 서사 문법의 일탈을 통한 운문지향의 글쓰기 방식이라는 호남문학의 특성과 연계된다. 채만식과 최명희, 이문구를 예를 든 위 인용문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점은 지역 문화적 특성 뿐 아니라, 전통적인 구술 현장처럼, 산문에서의 리듬감을 획득하는 묘사나 설명방식을 창작방법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이야기방식의 현대적 변용은 첫째, 이야기판의 소통구조에 독자를 유인하는 서술자의 의식이 개입된다는 점, 둘째, 산문적인 리듬감을 획득하는 서술을 통해 구연 형식을 취한다는 점, 셋째, ‘여음’문장을 활용하여 구술성을 강조하고 이성이나 논리의 언어보다 직관과 감성의 언어로 묘사한다는 점이 있다. 이들은 모두 서술자가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이야기하기’의식의 산물이기도 하다.

3. 전통적 이야기 서술방식의 변용과 효과

3.1. 구술문화 전통의 판의 형성과 서술의 문제

우리 서사 문학의 전통과 맥락을 고려할 때, 판소리 문학 내지 판소리계 소

11) 전정구, 호남 지역 문학작품에 나타난 글쓰기의 특징, 『현대문학이론연구』26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265~266면.

설은 “숙련된 구연(口演) 양식”¹²⁾이 문자화되면서 발달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판소리는 창과 아니리, 발림으로 이뤄지는 연행구조를 지니고 있는 바, 연행상의 중요 인자는 서사가 추동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판소리는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음악적 요소도 개입되어 있지만, 그 바탕은 어디까지나 서사성에 있다. 서사의 소통 측면에서 보면, 구연의 바탕에 있는 이야기관에 연행자와 청자가 함께하고 있다. 이야기관은 소설의 서술세계에 빗대면 서술자(또는 내포작가)와 독자 사이의 소통 현장이라고 볼 수 있다.

『혼불』에서는 서술자가 이야기관을 스스로 구성하면서 마치 판소리 창자(唱者)가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소통의 직접성을 구현하여 생동감 있는 이야기 세계에 몰입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많이 활용한다. 그 양상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세 가지 양상으로 드러난다.

(1) 밤낮없이 흠발에서 뒹굴고, 험한 잡일에 식구의 연명을 걸고 있자니, 손톱 발톱을 깎지 않아도 자랄 틈이 없는데, 의복인들 제때에 빨아 입고 지어 입을 수 있으며 간수할 수 있었을까. 그저 몸에 꿰고 나가면 석 달 열흘이 지나도 철이 바꾸기 전에는 누더기가 다 되도록 갈아입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었을 것이다.

거기다가, 어떻게 흰 무명옷으로 떨쳐입을 수 있으리요.

거명물 들인 다섯세 무명 치마폭을, 그나마도 ‘거들치마’라 하여 몽당 치맛자락을 무릎까지 바짝 치켜 올려 입어야 했으니, 때묻은 고쟁이 속옷이 덜러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기 예사였다.(밑줄-필자, 1권, 102면.)¹³⁾

(2) 돌아누워 뒤척이던 사람들은 아예 일어나 앉고, 하릴없이 마음을 조이며 등잔불 아래 앉아 있던 사람은 방문을 비곳이 열고 바깥을 내다본다. 풍지가 더르르 우는데, 바깥은 오직 캄캄할 뿐이다. 일년 중에 밤이 제일 길다는 동지를 바로 앞둔 하늘에는 숨은 달빛조차 비치지 않는다. 어둠과 합세한 두터운 구름이 금방 내려앉을 것처럼 무겁게 웅크리며 하늘 한 자락을 물고 있다.(밑줄-필자, 3권, 114면.)

12) 김현주, 『판소리 담화 분석』, 좋은날, 1998, 228면.

13) 최명희, 『혼불』1-10권, 한길사, 1996. 앞으로 작품을 인용하는 경우, 권수와 면수만 표시함.

인용문 (1)은 반촌의 그늘에서 살아 온 옹구네, 평순네 등의 거명굴(黑谷) 사람들의 형편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가난과 힘든 노동, 구차한 의복으로 살아가는 상민들의 모습을 마치 민요의 타령조를 현대문으로 번역한 것 같은 묘사로 서술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새벽 질삼 질기는 년, 사발옷만 입고 간다”는 민요에서 사발옷은 ‘거들치마’나 ‘두루치’같은 폭도 좁고 길어도 짧은 옷을 지칭하는데, 사발만큼 작은 옷이라는 과장이 들어있지만 역으로 가난과 한이 강조되어 표현되고 있다. 이 장면은 “죽고 살고 엮어져서 논 매고 밭 매도 이년의 목구렁에는 보리죽이 닳상이고(마땅하고), 손톱 발톱 다 모지라지게 베를 짜도, 내 평생에 얻어입는 것은 요 사발만한 두루치 한 조각이여”라는 옹구네의 한숨과 연계되면서 거명굴 여인의 힘든 삶을 현재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여기에 밑줄 친 “밤낮없이~있었을까”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와 대조를 통하여 힘든 현실을 강조하고 운율을 넣어 리듬감 있게 산문 문장을 진행시킴으로써 독자를 한마당으로 이끄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인용문 (2)는 청암부인의 죽음을 예고하는 서술로 거명굴 사람들의 어두운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인물의 행동, 문풍지의 떨림, 어두운 구름이 깔리는 풍광 묘사가 청암부인의 혼백이 떠도는 것처럼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비곳이 열고’, ‘더르르 우는데’, ‘무겁게 우크리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성어, 의태어 등을 활용하여 산문에 리듬감을 부여하면서 서사 상황을 집중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판소리 사설 문체로 분위기를 묘사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인물의 대화 장면을 판소리 사설 형식을 현대적으로 변용하여 인물 성격과 사건을 형상화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1)“제엔장혈 놈의 시상, 다 똑같은 사람으로 났는데, 썩 빠지게 일하는 놈은 죽어라 일만 허고, 할랑할랑 부채 들고 대청마루에 책상다리 앉았는 양반은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눈만 몇 번 깜짝이면 몇 천 석이니 먼 놈의 시상이 이렇가야. 생각을 숫세 안해 부러야제, 생각만 조께 허면 기양 속이 뒤집어지게 ……”(1권, 112면.)

(2)“그런 소리 말어. 썩어 죽으면 흙 되는 노무 인생. 수절한다고 누가 열녀문을 세워 준다등가? 그것 다 속절없는 것이라고. 나 같은 상년의 팔짜에 과부된 것만도 원통헌디, 거그다가 소복 단장허고 그림자맹이로 앉아서 지낼 수도 없

는 것을, 무신 수로 뿐 냐서 산당가야? 수절 열녀. 그거 다 양반들이 매급시
뿐 내니라고 그러능 거이여.(…하략)”(2권, 26면.)

(3)“대장부로 태어나서 일세를 풍미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내가 나이 마흔
여섯이라 오십을 바라보는 이 마당에, 공명(功名)을 떨친 것도 아니요, 그렇다
고 바라지게 가세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참 무슨 학문에 몰두하여 대성한 바도
없으니, 유야무야(有耶無耶) 한평생이 허투르기 짝 없는 일인데, 무엇으로 이
세상에 왔다 갔다는 점을 찍으리. 그것도 명맥이 끊기다시피 된 종가에 종손으
로 들어와서 제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어찌 나라고 생각이
없고 중정(中情)이 없겠는가……?(…하략)”(2권, 76~77면.)

인용문 (1)은 두레를 서두르면서 모내기를 하는 장면에서 일어나 서둘러
하자는 공배의 말에 춘복의 한탄을 직접 대화형식으로 제시한 부분이다. 인용
문 (2)는 가뭄으로 청호저수지가 마르자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모습을 형상화
한 부분에서 옹구네가 과부된 신세를 탄식하는 대화문이다. 인용문 (3)은 창
씨개명을 하기로 했다는 이기채의 말에 청암부인은 회한에 잠기고, 기표가 종
가의 삶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자 기채가 그에 대해 화답하는 장면이다.

이들 대화문은 구연 방식의 변용이 특징적이다. 실제적인 인물의 대화를
그대로 전사(轉寫)하거나 사실적으로 재생했다기보다 작가적 서술이 의도적
으로 개입된 대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인물의 대화에서 이들의 말은 어휘 선
택이나 형식, 대화의 길이 면에서 실제와는 괴리가 있다. 오히려 (1)은 춘복의
현실 비판적 태도나 성격을 부각시키는 서술이며, (2)는 과부의 삶에 대한 비
애보다 옹구네의 의식세계나 종가 여성에게 보이는 비판적 태도가 예고되어
있는 서술이다. (3)은 기채의 규범적인 태도나 종손으로서의 책무나 체면을
중시하는 모습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1)과 (2)는 사투리로, (3)은 정제된
표준어를 사용함으로써 인물 성격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 대화문은 전통적 이야기관에서 청자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소리를
하는 외적 형식을 보여주면서 실제적으로는 인물의 성격이나 사건의 전개를
예고하는 수단으로, 또는 서사 진행의 전개에 도움이 되는 대화로 이용하는
방식과 닮아 있다. 즉, 외적으로는 대화의 재현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술자가 인물 형상화나 사건의 전개에 이용하려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내재

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이러한 판소리 형식의 차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장 형식은 음이나 단어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산문에 리듬을 형성하면서 사건이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경우도 흔하다.

(1)논갈기를 필두로 가래질·씨래질에 못자리하기·볍씨치기·거름주기·피고르기·모찌기·모심기, 그리고 콩심기며 논김매기·풀하기·벼베기·벧단 주위뭉기·괭이기·타작, 거기다가 흥겨운 방아찼기·새끼꼬기·가마니치기 등을 있는 대로 흥내내며 농악대의 쾌자 자락이 휘날릴 때, 열두 발 상모가 푸른 하늘에 그리던 갖가지의 하얀 무늬는 또 얼마나 경쾌하고 절묘하였던가.(1권, 116~7면.)

(2)그저 저희끼리 손을 비비며 놓고 있는 자잘하고 맑은 소리, 강 건너 강골 이씨네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이쪽 대실로 마실 나온 바람이 잠시 머무는 소리, 어디 먼 타지에서 불어와 그대로 지나가는 낮선 소리, 그러다가도 허리가 휘어질 만큼 성이 나서 잎사귀 낱알의 푸른 날을 번뜩이며 몸을 솟구치는 소리, 그런가 하면 아무 뜻 없이 심심하여 제 이파리나 흔들어 보는 소리, 그리고 달도 없는 깊은 밤 제 몸 속의 적막을 통소 삼아 불어 내는 한숨 소리, 그 소리에 섞여 별의 무리가 우수수 대밭에 떨어지는 소리까지라도 얼마든지 들어 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아무도 그 대바람 소리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없었다. 마을에 큰일이 있기 때문이었다.(밑줄-필자, 1권, 12면.)

인용문 (1)은 두레의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다. 두레는 서로 개인마다 품을 맞바꾸는 ‘품앗이’와 달리 마을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농사 축제라고 할 수 있다. 농악과 농무로 분위기를 고조시킨 다음 모두가 모여 자타 소유를 구분하지 않고 공동으로 마을의 농사일을 한다.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단어의 나열로 산문에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기’의 나열은 농사의 노동행위를 나열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농악대의 쾌자 가락에 경쾌하고 즐거운 마을사람들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용문 (2)는 강모와 효원의 혼례를 앞둔 분위기를 묘사한 부분이다. 대바

람 소리를 구체화하여 여러 형상으로 비유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소리’의 변주를 통해 대실 마을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으면서 서정적인 문체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여러 소리로 엮어가는 문장의 변이뿐 아니라, 이 소리의 내면에는 앞으로 전개되는 인물이나 사건의 형상을 예고하는 면도 있다는 점이다. 놀이와 웃음으로 대사를 맞는 마을 분위기에서부터 효원의 형상이나 강모, 강실의 심정, 인월댁이나 기체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묘사도 있다. 독자는 이러한 소리가 인물과 사건에 연계되는 구체적 상황을 1부 전개의 중간 중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2. 비유를 활용한 묘사와 독자 유인의 장

한국의 전통적인 이야기 서술방식 중 가장 주목되는 문체상의 특징은 ‘엮음’ 문장의 구성이다. 엮음 문장이란 산문적인 리듬감을 형성하면서 구연의 언술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동일 의미의 언술층위의 반복, 끝소리 이어가기 형태, 의성어나 의태어의 반복적 활용, 비유 층위의 유사성 활용 등의 방법이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강모가 매안 아랫물 밭둑머리에 서서 오류골을 보며 강실을 그리워하는 부분을 묘사할 때, “……강실아…”, “이리와, 강실아”, “……나 좀 보아”를 삽입하면서 강모의 내적 심경을 점층적으로 강화시킨다. 강모가 병석에 있는 청암부인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서러웠다”, “무게가 겨웠다.”, “무기력이 서러웠다.”로 변이되는 표현을 쓰면서 설움과 비애감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방식은 작품 곳곳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체상의 특징이다. 이러한 점은 시간의 정지와 묘사의 확장을 통해 독자를 장면에 참여시키면서 서사 분위기를 이끄는 방식이기도 하다.

인물의 행동 묘사나 상황의 설명, 사건의 분위기는 비유를 통해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 이야기꾼의 입담은 적절한 비유를 통해 청자의 감성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변이 현상이 서사물에서는 직유나 은유, 환유의 표현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비유 표현은 독자에게 서사의 장에 참여를 유인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1)떡약별이 정수리에 늦짓가락을 꽃는 오뉴월 염천의 한낮. --- (중략) 그네의

낮빛은 창호지 같았다.(2권, 214면.)

(2)달구어진 햇벌에서 혹 낫쇠 냄새가 난다.(1권, 259면.)

(3)그 햇빛은 조청처럼 무겁다.(...) 꽃잎의 입술과 대궁이 허영게 말라들어 미농지로 만든 조화같이 변한다.(1권, 308면.)

(4)무거운 햇살이 조청같이 녹진하여 한 걸음도 옮길 수 없게 하더니, 이제는 어둠이 무거워 손조차도 둘 수가 없다.(2권, 144면.)

인용문은 햇벌을 전통적 소재인 ‘낫쇠’나 ‘조청’으로 비유하여 인물의 처지나 상황, 배경 묘사에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인용문 (1)은 청암부인이 기채의 부축을 받으며 청호를 둘러보는 장면이고, 인용문 (2)는 여름에 농사일을 준비하는 거명굴 사람들의 묘사 장면이다. 인용문 (3)은 강모의 심경을 대변하고 있는 부분이고, 인용문 (4)는 강실이 강모를 그리워하는 장면이다. 감각적이고 민속적인 어휘의 동원으로 염천의 뜨거운 날을 ‘정수리에 낫젓가락을 낫는’다거나 ‘낫쇠 냄새가 난다’고 적절히 비유하고, 무겁고 허전한 기분을 ‘조청’이나 ‘미농지로 만든 조화’로 비유하여 독자가 인물의 심경과 동일시하게 하는 효과를 준다.

(1)눈을 지그시 내리뜨고 무슨 갑옷에 싸인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다.(1권, 31면.)

(2)숨이 막히고 고적했다. 그 고적이 우무같이 엉기어 내려앉는 햇살에 어깨가 무거웠다.(1권, 47면.)

(3)강실이는 어둠을 밀치고 일어나 앉는다. 마치 그대로 누워 있으면 자신을 누르고 있는 어둠이, 그대로 맷돌짝이 되고, 바윗덩이가 되어 짓눌러 버릴 것만 같은 숨가쁜 심정 때문이었다.(2권, 312면.)

(4)절구에 짓짚은 손가락의 살점처럼 이미 피멍이 든 채로 떨어져 나간 사람과의 인연을, 이리저리 기워 맞추어 다시 이어 보려 하여도 하릴없는 희롱에 불과

하게 되나니.(2권 313면.)

인용문 (1)은 신방에 앉아있는 효원의 모습을 표현한 부분이고, 인용문 (2)는 혼례 후에도 강실을 잊지 못하는 강모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인용문 (3),(4)는 강모를 연모하는 강실의 심정을 묘사한 부분이다. 이들 비유적 표현은 ‘갓옷, ‘우무, ‘맷돌짜, ‘절구’같은 전통적인 민속생활에서 취택한 어휘로 인물의 심경을 절묘하게 연계시키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독자에게 서사의 진행보다 서사 상황 속의 배경이나 인물의 장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서사의 시간적·공간적 배경과 어울리면서 인물의 심리를 대변할 수 있는 묘사가 작품 분위기와 어울리는 감성적인 비유어를 쓰는 사례는 수 없이 많이 발견된다¹⁴⁾. 효원의 공방으로 걱정하는 율촌택이 “침묵이 저울추보다 무겁게 처지자”(1권, 253면) 강모를 낮은 소리로 채근하고, 바이얼린 공부를 하고 싶다는 강모의 말에 화가 난 기채의 모습은 “그의 신경가닥과 힘줄들은 당길 대로 당겨진 활시위처럼 푸르르 떨린다.”(1권, 300면)로 묘사하고 있다. 율촌택이 시집왔을 때의 심정은 “집은 마치 벗어 놓고 온 신발처럼 봄밤의 어둠을 끌어 안고”(2권, 37면) 있었다. 종가를 대표하는 인물인 청암부인은 “서릿발 같은 기상”으로, 그의 아들 기채는 “늦게떨이 같은 강단”(1권, 67면)으로 비유한다. 종가의 책무에 짓눌리는 강모가 자유로움을 그리며 강실의 입장과 비교하는 장면에서도 이씨 종가는 “네모 반듯한 바둑판”이요, 암키와와 수키와가 꼭 맞물려 있는 “그물”같이 여기고, 강실이 살고 있는 등그런 초가지붕은 “감싸고 덮어주는 너울”(2권, 101면)로 대비시키고 있다.

4. 결론

『혼불』은 제의 형식을 통하여 종부의 운명적 삶을 그려낸 대하예술소설이

14) 이러한 점은 “인물로 상징된 대상 사물과 서술자 사이의 교감이 일구어 낸 그 서술상황에서 독자의 느낌 또한 이끌리기” 쉽게 되는 데 기여한다. 이른바 “감입(感入)이 활성화된 상황”으로 변형된다. 장일구, 『혼불』의 시점, 그 역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집, 1998, 556면.

다. 이 작품이 작가의 말대로 “우리식 고유의 이야기 형태를 살리면서” 한국적인 서술방식을 소설로 형상화한 수작이라고 한다면, 전통적 이야기방식이 어떻게 변용 창조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구비문학의 전통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전통적인 이야기 방식은 설명적 권위를 지닌 서술자가 이야기를 주도하면서 구연의 언술형태와 ‘억음’의 문장을 보인다. 또한 곳이나 판소리 마당에서 볼 수 있듯이 독자를 서술세계 안으로 유인하는 직관과 감성의 언어로 묘사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 논문에서는 구술문화 전통의 판을 어떠한 방식으로 서술 차원에서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유를 통한 묘사가 갖는 독자유인 효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작품은 서술자가 이야기판을 스스로 구성하면서 마치 판소리 창자가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소통의 직접성을 구현하는 구성을 보인다. 그 양상은 첫째, 판소리 사설형식을 변용하여 비교와 대조를 통한 산문리듬감을 획득하여 인물의 성격과 사건을 형상화하는 방식을 택한다. 둘째, 대화문의 경우, 구연 방식에 작가의 목소리를 참여시켜 이중효과를 보이고 있다. 외적으로는 대화의 재현이지만, 내적으로는 인물 형상화나 사건의 전개와 연관을 지어 서술자의 목소리가 내재되어 있다. 셋째, 음이나 단어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산문에 리듬을 형성하면서 서사 속의 인물의 상황이나 사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인물의 행동 묘사나 상황의 설명을 적절한 비유를 통해 독자의 감성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유 표현은 독자를 서사의 장에 참여케 하는 유인효과를 주면서 소통의 직접성에 기여하고 있다. 감각적이고 민속적인 어휘의 동원으로 배경이나 인물의 심리 상태를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독자와 인물 사이의 간격을 가깝게 유도하는 전략으로 삼고 있다.

전통적 이야기 서술방식이 현대적으로 변용하여 우리식의 이야기 구성을 창조한다는 작가 의식은 텍스트 상에서는 중심 서사에 수많은 기생텍스트를 삽입하는 현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 작품이 시간의 단절과 지연 형태가 많고 수많은 전승담론이나 풍속을 기생텍스트로 제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소설의 독법은 달라야 한다. 사건의 추이나 결말에 집중하기보다 인물의 상황과 사건의 분위기, 작가의 세계의 인식 태도에 중점을 두고 단위별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불』을 읽는 즐거움은 인물의 운명이나 사건의 연쇄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인물이나 사건이 묘사나 설명을 통해 구현되는 형상이나 감각과 직관에 의지하는 구술담론의 역학에 있다. 서술자가 직접 나서서 안내하는 이야기판에서 비유적 표현이 텍스트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감지하면서 이야기의 상황을 상상하는 태도가 서사의 진행을 재구할 수 있는 힘이다.

『혼불』의 서사성과 담론구성 방식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피는 일이 차후 과제이다. 플롯과 기생텍스트의 연계문제, 인물의 형상화와 구술담론 사이의 관계, 장구한 옛이야기를 차용하여 설명적 진술을 하는 경우에서 중심 서사의 기능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현대소설의 새로운 창작법의 실험으로, 또는 『혼불』의 문학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점검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용, '최명희 소설 연구', 전북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4.
- 김용재, 『한국소설의 서사론적 탐구』, 평민사, 1993.
- _____, '『혼불』의 이야기 구조와 담론 특성', 『초등교육연구』20집 1호, 전주 교대 초등교육연구원, 2009.
- 김복순, '대모신의 정체성 찾기와 여성적 글쓰기-페미니즘 시각으로 본 『혼불』', 전라문화연구소, 『혼불의 문학세계』, 2001.
- 김열규, '『혼불』의 생태비평', 『현대문학이론연구』 1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1999.
- 김현선, '『혼불』에 나타난 민속신앙적 면모', 『혼불과 전통문화』, 혼불기념사업회, 2002.
- 김현주, 『판소리 담화 분석』, 좋은날, 1998.
- 박현선, '최명희 소설 연구', 경원대 대학원 박사 논문, 2002.
- 서정섭, '『혼불』의 서사 구성과 언어 책략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 우한용, '혼불을 보는 시각과 해석의 지평', 『혼불의 문학 세계』, 전라문화연구소, 2001.
- 이덕화, '가부장적 의식과 여성', 『혼불의 문학세계』, 전라문화연구소, 2001.
- 임환모, '『혼불』의 텍스트성과 서사 전략', 『현대문학이론연구』 2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3.
- 장일구, '전승의 담론, 교감의 미학',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1999. 1. 1), 『혼불과 전통문화』 재수록본, 2002.
- _____, '『혼불』의 시점, 그 역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1998.
- _____, '『혼불』 서사 구성의 역학', 『혼불의 문학세계』, 전라문화연구소, 2001.
- _____, 『혼불 읽기, 문화 읽기』, 한길사, 1999.
- _____, 『혼불의 언어』, 한길사, 2003.

- 전정구, '호남 지역 문학작품에 나타난 글쓰기의 특징', 『현대문학이론연구』 2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 최명희, '『혼불』은 나의 온 존재를 요구했습니다.', 『리브로』 제27호, 한길사, 1996.
- 황국명, '『혼불』의 서술방식 시론', 『현대문학이론연구』 1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1999.
- _____, '『혼불』의 구술문화적 특성', 『혼불과 전통문화』, 전라문화연구소, 2002.
- Booth, Wayne. C., *The Rhetoric of Fiction*,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1. 최상규 역, 『소설의 수사학』, 새문사, 1985.
- Genette, Gerard, *Narrative Discourse: An Essay in Method*, trans. Jane E. Lewin. Ithaca: Cornell Univ. Press, 1980.
- Lanser, Susan Sniader, *The Narrative Act: Point of View in Fict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1.
- Martin, Wallace, *Recent Theories of Narrative*, Ithaca: Cornell Univ. Press, 1986.
- Prince, Gerald, *Narratology: The Form and Functioning of Narrative*, Berlin: Mouton, 1982. 최상규 역, 『서사학-서사물의 형식과 기능』, 문학과지성사, 1988.
- Rimmon-Kenan, Shlomith, *Narrative Fiction: Contemporary Poetics*, London: Methuen, 1983.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 지성사, 1985.
- Scholes, Robert & Kellog, Robert, *The Nature of Narrative*,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6.
- Stanzel, F. K., *A Theory of Narrative*, Trans. Charlotte Goedsch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4. 김정신 역, 『소설의 이론』, 문학과비평사, 1990.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필자의 『혼불』의 이야기 구조와 담론 특성'에 대한 후속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기존연구에서는 한국적 이야기 서술의 재현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사실의 전사(轉寫)는 구술을 통한 이야기 전개의 변용 형태이면서 인물이나 플롯에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문장의 '억음'형식을 차용하여 현장성이나 직접 소통을 강조하는 구연(口演)형식을 변용하고 있다. 셋째, 작가적 설명이나 서술이 독자 유인효과를 발휘한다.

이 논문에서는 전통적 이야기 방식의 변용 양상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서술자가 이야기관을 스스로 구성하면서 독자에게 소통의 직접성을 구현하고 있다. 둘째, 인물의 묘사나 상황을 적절한 비유를 통해 독자의 감성을 조정하여 독자유인 효과를 준다. 전자는 비교와 대조를 통한 산문리듬감의 획득, 대화문의 재현을 구연하면서 서술자 목소리를 가미시키는 방법, 음이나 단어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산문에 리듬을 주는 방법으로 구체화한다. 후자는 감각적이고 민속적인 어휘를 동원하여 배경이나 인물의 심리 상태를 빗대어 표현하여 독자와 인물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있다.

주제어 : 『혼불』, 이야기 구조, 담론 특성, 서술, 재현방식

【Abstracts】

Korean Traditional narration in Contemporary Novel

— focused on “Hon-Bul” —

Kim, yongjae

This is a follow-up study of ‘The feature of discourse and the structure of 『혼불』’. The original story has three distinctive Korean narrative methods. First, it was applied to unfold the plot through oral statement and it affected the character and its plot. Second, it transformed the colloquial narrative method centering on the reality and direct communication by borrowing the ‘compilation’ of sentences. Third, the explanation of the writer and the description attracted the readers.

This study analyzed two transformations of traditional narrative methods. First, the narrator emphasized the immediacy of communication by constructing its own storyboard. Second, the story attracted many readers using appropriate figures of speech and the character description. The former specified the methods of rhythmic sense of prose using the comparison and contrast, the insertion of the voice of narrator by realizing the conversation, and the methods of rhythmic sense of prose using the word similarity and sound. The latter lessened the gap between the reader and the character by comparing sensuous and traditional words to the background of the story and the mental state of the characters.

Key word : feature of discourse, structure of 『혼불』, narrative

이 논문은 2014년 1월 12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1월 27일에 심사 완료
되어 2014년 2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